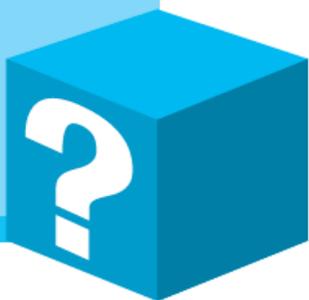




미래엔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 영상

꿈나침반 활용집



MiraeN 교과서

동아일보 교육법인

의약 계열

- 29. 봉사과 희생의 전문 의료인 '간호사'
- 30. 정정당한 스포츠 경기를 만드는 '도핑검사관'
- 31.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백신연구원'
- 32. 물고기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 33. 반려동물의 수호천사 '수의사'
- 34. 소중한 생명의 파수꾼 '응급구조사'
- 35. 마음치료사 '정신과 전문의'



봉사와 희생의 전문 의료인 '간호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김은구

2016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699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합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해 82.1세 (2015년 기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문 의료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요.

증가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매년 약 20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남자간호사수는 1만 명을 넘어섰으며, 간호사 선호도도 최근 들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습니다. '간호'의 사전적 의미인 환자의 시중을 든다는 뜻 때문에, 간호사를 그저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문 의료인으로서 간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 간호사가 하는 일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의료인!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를 도울 뿐만 아니라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표준화된 간호지침에 따라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을 담당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도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표준화된 간호지침에 따라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병원에 병문안을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간호사가 일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의사의 처방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료 활동들이 간호사의 업무이지요.

간호사의 업무가 간단해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간호사의 업무는 높은 책임감과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담당 환자의 경과가 좋지 않거나 사망했을 경우 혹은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해 많은 처치를 시행해야 할 경우에 간호사로서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김은구 간호사)

최근에는 간호사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병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는 간호사들은 자신의 손길이 닿는 환자들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요. 그럼에도 간호사는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항상 배려와 애정, 희생정신을 갖고 환자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자 노력합니다.

▼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봉사정신은 필수요소!**

보살핌으로 환자에게 위안을 주는 직업

▶ **봉사정신이 필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바로 봉사정신입니다. 간호사의 보살핌은 환자에게 위안을 줍니다. 약물, 수술과 같은 치료가 환자의 병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 또한 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사를 오갔던 환자의 상태가 자신의 노력으로 점차 차도를 보일 때 간호사는 일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경험은 더 많은 환자를 찾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요. 따라서 나의 노력으로 환자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봉사정신이 간호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 전공 후 간호사 면허 취득해야!**

대학에서 간호학 전공해 학위취득 → 국가고시 합격해 간호사 면허 취득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호학 학위입니다. 이는 대학에서 간호학

을 전공으로 선택해 공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사 면허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호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병원 외에 다양한 특수 분야에서도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공항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항공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진료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보험심사 간호사'도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량을 인정해주는 '전문간호사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 **전문간호사 제도**

전문간호사란?

의료법에서 인정한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입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총 13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되는 과정

특정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대학원 수준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전문간호사 과정 이수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인정한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총 13개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갖춘 사람 중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뒤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환자에게 헌신하라!

“만일 어떤 환자가 추워한다거나, 고열에 시달린다거나, 쇠약해 있다거나, 음식을 먹고 괴로워한다거나, 또는 욕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체로 질병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간호에 기인하는 것이다. 간호는 투약하거나 습포제를 바르는 것 정도로 그 의미가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간호는 환기, 채광, 난방, 청결, 정숙 등의 적절한 활용과 식이의 적절한 선택과 관리 등, 환자의 체력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해야만 한다.”(나이팅게일의 ‘간호론’ 중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첫 실습을 앞두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에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 직에 최선을 다 한다’라는 맹세와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인 셈이지요.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문 의료인 ‘간호사’. 의료행위로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삶을 되돌려 주고 싶은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간호사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